

구술기록의 기록학적 관리 방안

- 선영란, 김영경, 이수원, 김은형, 이현정, 이미영,
김세희, 여상아 공저(2006), 한국국가기록연구원 -

권미현*

질곡과 부당함의 근현대시기를 지나온 우리는 여느 나라 보다 청산해야 할 과거사를 많이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과거사 청산과 관련한 위원회, 단체 등이 생겨나고, 과거사 진상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청산해야 할 과거는 지난 역사 속에서 중심에 서지 못하고 숨겨지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록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사 청산을 사명으로 안고 있는 여러 기관들은 새로운 기록을 발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구술사료¹⁾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기 시작했다.

구술사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통해 역사쓰기를 하는 구술사는 이미 역사학, 사회학, 여성학, 민속학, 인류학 등에서 시작된 지

*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조사관, 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 박사과정.

1) 구술사료(oral history archives)는 필자가 구술사료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장해 온 용어로 이 글에서도 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을 밝혀둔다.

오래이다. 그러나 구술사를 하기 위한 구술사료를 독자적인 자료라는 관점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을 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지난 몇 년간 구술사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 온 여러 기관, 단체들은 이제 활용을 염두에 둔 관리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발간된 이 연구보고서는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현재의 문제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서론에서는 이 보고서의 연구 목적과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외의 구술사 연구의 역사와 발전과정을 검토하면서 구술사료의 관리 방안을 연구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본문은 크게 구술사료의 관리 현황과 관리방법론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번째 구술사료의 관리 현황에서는 국내외의 구술사료 수집기관 사례를 기록학적 프로세스별로 검토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술사료의 수집·생산, 관리와 보존, 이용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이들의 문제점 및 쟁점을 분석했다. 수집에서는 각 기관의 사명과 구술자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시급하게 진행되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체계와 지침을 마련한 후에 수집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이란 의견을 제시했다. 정리의 문제에서는 수집에만 치우쳐 정리의 문제까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점차 축적되는 구술사료의 관리 문제에 당면하는 현재의 상황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존의 문제에서는 보존환경이나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수집된 구술사료가 적절한 보존환경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활용에서는 구술사료의 생산방식인 개인의 구술이라는 점

과 민감한 사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등의 이유로 공개나 활용에서 조심스러워 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법적·윤리적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규정이나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소개된 기관, 단체는 다른 연구에서나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례들로, 현재 더 다양한 기관, 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구술사료 수집, 관리 현황을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 부분은 구술사료의 관리 방법론이다. 생산 구술사료의 기획부터 면담 후 평가까지를 다룬 수집, 구술사료의 등록·분류·기술·전거제어, 활용과 서비스, 원활한 열람을 위한 검색도구, 보존서비스, 디지털라이징 등을 다루고 있다. 구술사료는 크게 기증 구술사료와 생산 구술사료로 나눌 수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생산 구술사료에 한정해서 다루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 구술사료를 기증한 사례가 드물기 때문이라고 서두에 밝히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중복수집의 방지, 주제별 사료관의 건립 등의 이유로 기증 구술사료를 관리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생산 구술사료의 관리방법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수집방법은 기존의 연구방법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평가는 내용평가, 형태평가, 기술평가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세 가지의 평가는 각각 수행하는 시점이 다른데, 그 부분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 등록은 등록서식에 구술사료가 등록되면 자동적으로 자료에 대한 상태확인이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도록 항목들을 구성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분류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구술사료의 분류는 기본적으로 주제별로 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인명별, 수집순서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보고 있다. 또한 구술사료가 폭넓은 분야에서 수집되기 때문에 모든 기관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만든다는 것이 불가능함을 한계로 지적하면서, 표준적 분류체계안을 토대로 각 기관별 특성에 따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구술사료의 기술은 기록의 국제기술표준인 ISAD(G)를 기본으로 하면서, 국내에서 연구된 구술사료 기술요소를 분석하여 기술요소(안)를 제시하고 있다. ISAD(G)의 기술영역에 물리적 기술영역, 관리영역, 보존영역을 추가하여 총 9개영역으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제안한 기술요소를 국내 한 기관의 소장 자료를 대상으로 컬렉션, 시리즈, 파일 각각의 계층별 기술을 시도했다. 이 보고서가 기존 연구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선거제어에 대한 논의가 있다는 점이다. 구술사료의 관리에서 선거제어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사료관리시스템 내에서 구현되는 구술사료의 선거제어에 대해 국내 한 기관의 사례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선거레코드의 구축을 통하여 각 기관별로 소장하고 있는 구술사료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중복수집 방지는 물론 각 기관, 단체별로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구술사료의 주제별 컬렉션 형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구술사료의 물리적 관리와 보존에서는 빠르게 발전, 변화하는 다양한 보존매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구술사료를 보존할 수 있는 다양한 매체별 보존방법을 설명하면서, 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디지털화를 제안하고 있다. 구술사료의 활용과 서비스에서는 간행물 발간과 연구사업 지원을 통해 구술사료의 활발한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열람서비스에서는 기관별로 열람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방향을 담은 열람정책을 가지고 열람서비스를 수

행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접근성과 관리성을 높이고 이용의 원활함을 돕기 위해 온라인 검색서비스를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검색과 열람이 가능한 국내외 사례 소개하면서, 구술사료의 검색을 위한 검색도구를 정리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의 이용에서 문제될 수 있는 윤리적 문제, 저작권의 문제, 개인정보 누출 등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없이 다른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구술사료의 관리규정의 제정을 다루고 있는데, 관리규정에는 수집과 등록, 분류, 기술, 보존과 활용, 자료공개 기준, 열람 등에 관한 모든 정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보고서는 구술사료를 수집, 관리하는 기관에 유용하도록 수집부터 활용까지 기록학적 관리 프로세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국내외의 구술사료 수집 기관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여 구술사료를 수집, 관리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기관이나 혹은 현재 수집만 해놓고 관리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기관에게 유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구술사료도 기록으로 보고 기록학적 방법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기관, 단체에서 수집, 관리하고 있는 구술사료는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보다는 다른 기록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컬렉션으로 형성된다. 이 보고서에서는 구술사료가 하나의 독자적인 컬렉션을 형성했을 때 유용하도록 정리된 방안들이다. 이와 함께 다른 기록과 관계 속에 있는 구술사료의 관리방안도 고려하면 더 유용한 보고서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또한 구술사료를 수집, 관리하는 다양한 국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한 분석에만 그치지 말고, 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집에서 활용까지의 방안들을 실제로 모델링 해 보는 것도 유용한 작업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한 작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의 발간을 계기로 기록학과와 관련 기관에서 구술사료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한국적인 상황에 맞는 구술사료 관리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협력체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